



벤처월드 오토바이 안전벨트 '세이프밴들'

“오토바이 동승자 안전도 꼭 잡아줍니다”

운전자 허리에 감싸 손잡이 제공 초기 다·유럽제품에 밀렸지만 동호회서 “편리하다” 입소문

‘노바크’ 브랜드로 국내외 개척 작년 베트남 등에 33만弗 수출



최재호 벤처월드 대표가 오토바이 동승자용 안전벨트인 세이프밴들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한재도** 제공

“많은 사람이 헬멧을 쓰면 이륜차 사고가 나도 크게 안 다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헬멧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 동승자를 위한 장비도 꼭 필요합니다.”

최재호 벤처월드 대표는 15년째 오토바이를 즐기는 바이크 애호가다. 2014년 오토바이 용품 제조업체 벤처월드를 창업하고 동승자용 안전벨트인 텐덤벨트 개발에 나선 것도 오토바이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소비자 의견 등을 반영하고 기존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보완해 2015년 선보인 세이프밴들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편의성 고려해 기능과 소재 보완 세이프밴들의 원리는 간단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허리에 감싸 동승자에게 손잡이를 제공한다. 국내 시장보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오토바이가 보편화된 국가에서 더 잘 알려졌다. 최 대표는 “기존 텐덤벨트 제품은 손잡이가 2개뿐인데다 수납공간이 전혀 없어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제품 성능 등을 대폭 개선한 세이프밴들을 선보였다. 손잡이 개수를 4개로 늘려 동승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클, 프

린팅, 웨빙 등 소재를 고급화·경량화했다. 세계 최초로 수납용 히프색과 어린이용 손잡이 제품의 탈착 기능까지 갖췄다.

◆해외 공략·가방 등 사업도 확장 최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잇달아 새 브랜드 노바크를 내놓고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에 몰두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세이프밴들이 편리하고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 판매량은 점차 늘기 시작했다.

벤처월드는 전국 오토바이 용품 전문점 20여 곳과 온라인몰, 오토바이 용품 소매점에 세이프밴들을 공급하고 있다.

쓰는 제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외 공략·가방 등 사업도 확장

최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잇달아 새 브랜드 노바크를 내놓고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에 몰두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세이프밴들이 편리하고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 판매량은 점차 늘기 시작했다.

벤처월드는 전국 오토바이 용품 전문점 20여 곳과 온라인몰, 오토바이 용품 소매점에 세이프밴들을 공급하고 있다.

벤처월드	
설립	2014년 10월
직원수	4명
위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업종	오토바이 용품 제조 등
제품명	노바크 세이프밴들

가격은 16만원대다. 지난해엔 스포츠카 소재로 제작한 히프 색, 백팩 등이 주력 제품인 시그니처 시리즈를 출시했다. 오토바이 용품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가방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성장이 정체된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로 눈을 돌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벤처월드는 2016년 호찌민 한국제품 전시회를 계기로 베트남에 본격 진출했다. 작년 매출은 3억 8000만원이다.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수출이 늘면서 올해 매출은 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 대표는 시그니처 시리즈를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등에서 프리미엄 가방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그는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썬스나이트, 투미 등 글로벌 가방 브랜드의 생산 과정을 바로 옆에서 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방도 오토바이 용품 업체에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thebest@hankyung.com)로 신청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美 임상 3상 실패는 CRO 잘못”

(임상시험수탁기관)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분석기관에 법적책임 묻겠다”



헬릭스미스의 미국 임상 3상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 측은 5개월 만에 임상 실패 원인으로 꼽았던 약물 혼용은 없었고 임상대행기관 등의 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사를 통해 당뇨병성 신경병성 치료제인 엔젠시스의 첫 번째 임상 3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분명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조사한 결과 엔젠시스의 미국 임상 31상에서 약물과 위약 간 혼용은 없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생산, 저장, 임상, 분석 등에 관련한 CRO들의 문서를 조사하고 사용된 약물, 검체 등을 모두 수거해 분석한 결과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9월 임상 31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데이터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혈중 유전자 검사를 했다니 위약(가짜약)군 환자의 혈액에서는 엔젠시스의 유전자가 많이 나온 데 비해 약물군 환자의 혈액에서는 엔젠시스의 유전자가 적게 검출됐다. 유전자치료제인 엔젠시스는 환자에게 유전자가 담긴 약물을 투여해 통증을 완화한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위약군이 약물을 맞고 약물군이 위약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 그때 분석기관이 제출한 데이터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

했다”고 했다. 그는 “혈중 유전자 검사는 간혹 틀릴 때가 있다”며 “분석기관에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상 31상의 실패 원인에 대해 김 대표는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제가 아니라 주사제로 대규모 임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 최초였다”며 “임상 수행 인력이 새로운 약물 투여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임상 초기 약물이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투여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약물 투여 3개월 후 통증 완화’가 헬릭스미스가 설정한 임상 주평가지표였으나 엔젠시스의 효과는 위약보다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임상 31상 환자 500명 중 101명을 대상으로 한 확대임상에서 결과가 더 좋았던 이유도 분석 중이다. 김 대표는 “두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도 유사하게 나와야 하는데 확대임상에서 결과가 더 좋았다”며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헬릭스미스는 조만간 추가 임상시험 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745억 투입

NEW 새로 나왔어요

리바트키친 중저가형 주방가구

중소벤처기업부는 1745억원이 투입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이 사업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최대 3년 이상, 2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 개발 기간과 규모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등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이번에 접수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R&D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로 직전년도 매출이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 2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현대리바트 가운 운영 하는 주방 가구 브랜드 리바트 키친이 중저가형 주방가구 신제품 L200G(사진)를 16일 출시했다.

고가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D채널(알파벳 D자 모양의 알루미늄 바)을 적용했다. 보통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한 주방가구엔 도어와 닿는 몸체 부분에 C채널을 적용하는데 D채널은 이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해 깔끔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다. 색상은 글로시 화이트, 캄베이지, 볼드그레이, 세이지그린 등 네 가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기생충’ 박 사장집 창호·안마의자 어디 거죠?

뉴스카페

영화 인기에 소품들 재조명 관련업계 기생충 마케팅 활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면서 영화에 쓰인 가구와 가전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영화에 제품이 등장한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생충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영화 속 상류층의 상징인 박 사장(이선균 분)의 고급 저택에 쓰인 제품이 특히 눈길을 끈다. 봉준호 감독은 ‘봉테일(봉준호+디테일)’이라는 수식어답게 상류층 저택에 어울릴 법한 제품으로

영화를 재했다.

박 사장 집의 상징과도 같은 넓은 유리창(사진)은 건축자재회사인 이건창호 제품이다. 전북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있는 ‘기생충’ 세트장에 창호와 중문을 시공했다. 거실에서 정원이 한눈에 보이도록 일반 가정집에서는 쓰기 힘든 가로 8.4m, 세로 3.1m의 대형 창호와 통유리를 특수 제작했다. 이건창호 관계자는 “퀄리티처럼 통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는 부자집을 표현하기 위해 대형 고정창을 만들고 한쪽에는 시스템 도어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워낙 크고 무거운 제품이라서 시공은 물론 운반도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박 사장 침실에 놓인 안마의자는 안



마입체 코지마의 ‘카이저’ 제품이다. 마사지볼이 사용자의 허리 굴곡을 인식해 마사지에 반영하는 4차원(4D) 마사지가 특징이다. ‘기생충’이 주목받으면서 코지마는 영화에 사용된 제품의 이름을 따는 이벤트를 여는 등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인공 백수 가족의 딸인 가정(박소담 분)이 박 사장 집에 들어가 목욕하는 장면에서 나온 욕실엔 세탄바스 제품이 사용됐다. 1990년 설립된 세탄바스는 욕조 세면대 슬라이드장 샤워부스 등 욕실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 컨설팅

경영리스크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위기극복 파트너-CEO클리닉과 함께 대비하세요!

기업승계 전략	중여/상속
주식이동	이익잉여금/배당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지급금 청산

f CEO클리닉 Q ☎ 1644-1714

CEO클리닉

CEO클리닉 파플라이프에서는 경영 효율화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제휴 세무법인,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을 통하여 법무, 세무, 노무, 특허 등 기타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플라이프